01~43-건설1월 1904.6.17 2:34 AM 페이지29

일본요코하마가나가와현건축콩쿠르에서입상

김명국 롯데건설 부장

"겸손하고 솔선하면 외국인도 마음 열어"

"폐쇄적인일본의 건설 시장 특성상 외국의건설업체가일본에서공공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통있는건축콩쿠르에서외국업체가수상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이번입상은해외건설측면에서의 미가자못크다고할수있습니다."

롯데건설의 김명국 부장은 요코하마 가나가와현건축콩쿠르에서자신이건축현장을 총괄한 '히노 양호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한다. 가나가와현건축콩쿠르는1956년부터 시상한전통이있는건축상으로, 최근2년 동안 준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조, 디자인 등 건축물 전반을 엄격히 심사해 선정하기때문이다.

히노양호학교는롯데건설이50%, 마츠모토쿠미 30%, 그리고사이몬이 20%의 지분을갖고조인트벤처방식으로시공한초현대식 학교 건물로, 2001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03년 6월 준공되었다. 하지만실제 시공은 공사 면적 3,634평 중 500여 평을제외한 3,165평을롯데건설이맡아수행하였다.

이학교는우리나라의특수학교와비슷하다. 그래서모든시설이지체부자유나정신장애학생들을감안해꼼꼼히설계 · 시공되었다. 강당좌석, 승강기, 위생설비, 무대음향이나 무대 조명 등도 최신식으로 설치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김명국 부장은" 히노 양호학교를 지으면서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경제대국일본을느낄수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지체 부자유 학생들에 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

히노양호학교가일본에서도인정받는 건축물로태어난데는현장소장이었던김명국 부장의공로가컸다. 이학교를짓기위해롯데건설이파견한직원은단2명. 김명국부장과공사담당직원1명뿐이었다. 그래서현장직원의 대부분인 일본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그들이 한국인 현장소장의뜻대로움직여줄지도미지수였다.

하지만기우에불과하였다. '일본통'김명국부장이있었던것이다. 그는마음의문을 잘열지않는일본인의특성을고려해'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는 자세 를 견지하되 원칙에입각한시공을하였다. 유창한일본어구사도 한몫을 하였다. 국내 현장과 다를 바 가없었던것이다.

김명국 부장이 일본통이 된 것은 과장 승진시험이계기가되었다. 외국어로일본어를선택하였고, 현장에근무하며 주경야독을 한 결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1993년 그는 롯데건설이 일본에서 처음으로수주한사이타마현사야마롯데여자기숙사 건설 현장에 연수 겸 현장 직원으로 가면서일본의현장을접하게되었다. 하지만그가일본의건설인과건설문화를제대로 익힌 것은 1998년의 나가사키 터미널 공사 현장." 당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생각으로가장먼저출근해서직원들의 책상을 닦았고, 상급자는물론 하급 직원들의 구두도닦아놓았습니다. 이 일을 6개월이상했더니비로소마음의문을열더군요. 자신감이생겼습니다. 떨어져사는가족에게도면목이서는것같았습니다."

김명국부장은현재서울가산동아파트형공장신축공사의현장소장으로근무하고있다. 이곳에서그는일본에서배운선진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관련해서는일본현장에서했던것을그대로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은 돈이들더라도철저히 설치하고, 매일 안전 작업지시서를작성해전달하기도한다. 이현장은지금1년간무재해기록중이다." 우리와일본건설업간에는 기술과 관리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지만 정작중요한것은사람입니다. 마인드를바꾸면건설인도현장도달라집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